

원 지사 '의원 사업비' 발언 거센 후폭풍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불편함 속 냉각기류 조짐
제주도의회 민주당 "의회 망신 주기"... 사과 요구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일정부분 오해" 유감 표명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도의회 본회의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다.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활동을 둘러싸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불편한 가운데 원 지사의 발언이 갈등 증폭의 도화선이 되면서 양측 사이에 냉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도의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원 지사의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이 된 원 지사의 발언은 지난 16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원 지사의 내년 예산안 의결에

다른 인사말 도중 나왔다. 이날 원 지사는 인사말 말미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원님들께 10억원씩 배분해 왔던 예산을 2021년도 예산부터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시 일부 의원들의 불만섞인 고성이 나왔고, 김태석 의장은 "폐회사를 읽을 기분이 안난다"면서 폐회사를 생략하고 산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박원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소집해 원

지사의 발언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 후 기자회견을 찾아 당의 입장을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희룡 도정이 들어선 이후 6년여 동안 정책감동·공공감동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정책 감동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 차원에서 '의회를 망신주기 위한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총회에서 지사의 유감 표명이 아닌 공식적 사과 요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이날 오후 제주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이 도지사를 대신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김 실장은 '지역현안사업 관련 입

장'을 통해 "지난 16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2020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통해 밝힌 제주도지사의 발언과 관련한 오해가 있음에 대해 도를 대신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역 내 산재한 주민생활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한 지역현안사업비가 지난 해 언론에 재량사업비 예산 퍼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도민사회로부터 일정부분 오해를 사왔다"면서 "제주도와 도의회는 2020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해왔고 그 결과 투명성과 절차성을 확보하는데 함께 해주셨다는 도의회 예결위와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72주년 4·3희생자추념식 슬로건 공모

도, 내년 1월 10일까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슬로건을 전국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슬로건에는 4·3의 아픔을 화해와 상생의 가치로 승화시켜 온 제주인의 평화 애호의 마음이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공모된 슬로건을 명확성, 참신성, 완성도 등 3개의 기준으로 심사하게 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총 8건의 슬로건에 대해서는 최우수 1건 100만

원, 우수 2건 각 50만원, 장려 5건 각 20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슬로건 접수는 내년 1월 10일까지며, 심사결과는 2월 중 발표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u.go.kr) 도청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슬로건은 홍보아치, 선전탑, 현수막, 홍보자료, 홍보영상 등 각종 제72주년 4·3희생자추념식 홍보물에 활용될 예정이다.

제72주년 4·3희생자추념식은 2020년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 및 추념광장에서 봉행된다. 오은지기자

제주산 검정무 산업화 원천기술 확보

제주TP, 추출물서 5건 특허등록·국제특허 출원
건강식품 가공산업·의료소재 산업화 탄력 전망

제주산 검정무가 고부가가치 산업화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JTP)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제주산 검정무(Black Radish) 추출물에서 비만과 지방간 치료 예방에 쓰이는 조성물과 항염증 소재를 개발해 3건의 특허 등록과 2건의 국제특허(PCT) 출원을 하는 등 검정무의 산업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JTP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제주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산업화를 위해 4년 전부터 월동무를 기반으로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기능성 월동무와 산업화 소재 개발에 힘쓰고 있다.

특히 제주산 월동무 검정무가 우리 몸의 에너지와 지방대사를 돕는 효소인 AMPK (Adenosine Monophosphate-activated Protein Kinase)의 활성화를 유도해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하고, 지질합성의 억제에 유도체 궁극적으로 비만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JTP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검정무의 재배기술과 가공기술뿐 아니라 유산균을 활용한 발효공정 및 표준

화 기술을 토대로 비알콜성 지방간 효능에 대한 인체 적용시험까지 마쳐 내년 건강기능식품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와 JTP 생물종다양성연구소가 확보한 기술을 활용한 제품 출시가 본격화되면 제주 검정무를 활용한 신산업이 성장하고 과잉생산 우려가 큰 월동무 산업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JTP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지속적인 기능성 연구의 활성화를 품종 다양화, 고부가가치 제품화 등을 통해 새로운 소비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겨울바다 찾은 관광객들 추위가 다시 시작된 18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해변을 거닐며 제주 겨울바다에서 추억을 만들고 있다.

강희만기자

'꿈바당 교육문화학생카드' 3월부터 발급

취약계층 대상 초 30만·중 40만·고 50만원 내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3월부터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학생카드 발급을 본격 시행한다.

제주자치도는 원희룡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학생카드 발급의 내년 신학기 시행을 목표

로 준비과정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제주 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업은 앞서 제주도교육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사업비의 50%를 각 부담하고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예산은 제주자치도의회

의결을 거쳤다.

이번 사업으로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초등학교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교생 50만원 한도의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학생카드를 발급 받아 주요 온라인 강의, 진로·진학 온라인 진단, 온·오프라인 서점, 진로체험 테마파크 등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학생

카드발급 시스템 구축 및 카드제작 등을 위해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국내 정상급 온라인 강의 제공사 및 진로·진학프로그램 지원사, 온·오프라인 서점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 확보 작업에 돌입하는 등 모든 준비와 시스템 교육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업

NH 농업

"나눔과 봉사로 더불어 사는 세상"

농업인이 환하게 웃는 그날을 위해 다 함께 나아갑니다.















제주시농협 조합장 고봉주

한경농협 조합장 김군진

애월농협 조합장 김병수

조천농협 조합장 김진문

고산농협 조합장 고영찬

하귀농협 조합장 강병진

함덕농협 조합장 현승중

김녕농협 조합장 오충규

제주축협 조합장 강승호

한림농협 조합장 차성준

구좌농협 조합장 윤민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고권진

제주시지역농축협운영협의회 협의회장 오충규 NH 농협제주시지부 지부장 부 남 기